

韓國 傳來의 在來市場에 관한 社會 經濟的 考察

李 相 玉*

《目 次》

I. 序 言	IV. 市場의 機能(朝鮮時代)
II. 市場의 歷史	1. 經濟的 機能
1. 三國時代 以前	2. 社會、文化的 機能
2. 朝鮮時代 鄉市	3. 在來市場의 逆機能
3. 開港前後의 世界市場	V. 市場의 社會經濟的 機能
4. 市場의 發達史	1. 俗談에 反映된 市場의 社會經濟
5. 市場制度의 變遷	史的 意味
III. 市場의 種類	2. 身分制 社會에서의 市場
1. 서울의 市廳	3. 民亂의 背後地로서의 市場
2. 有名市場	4. 社會變動의 現場으로서의 市場
3. 特殊市場	VI. 結 論

I. 序 言

市場처럼 한 자리에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곳은 없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市場이야말로 우리 人間들의 삶에 관한 經濟的、社會的、文化的 綜合 情報의 寶庫라고 할 수 있다.

本研究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情報交換의 場所 등으로 이용되는 시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變遷史와 市場이 社會 및 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市場의 歷史를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過去 우리의 民衆이 自然環境을 克服하면서 물질적인 부를 創造하여온 歷史의 주요한 부분인 手工業과 朝鮮時代의 鄉市를 중심으로, 제Ⅲ장에서는 六注比廳, 六部廳, 六分廳, 六長廳, 六調備廳, 六主夫廳이라고 불렸던 六矣廳과 원래 5日場이나 거의 常設化되다시피 한 松坡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

* 대신大學校 教授 附設社會科學研究所長

고, 제Ⅳ장에서는 시장이 갖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속담에 반영된 시장의 사회경제사적 의미와 민란의 배후지로 시장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시장에서의 各種 流通 經營의 秩序가 社會經濟史的 側面에서 어떤 經路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나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의 大形 在來市場이 流通開放에 對應하는 國際 競爭力 強化와 飽和狀態에 이른 製品別 市場의 活路를 찾아 이제는 海外 進出까지도 本格화하고 있으며 이의 實態로서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키, 중국의 연길, 북경시 및 몽골에 衣類百貨店 設立에 대한 交涉과 開店作業에着手하는 狀況에 이르고 있는 趨勢를勘案하게 된다.

따라서 한 나라의 經濟의 各種 要素들의 需給이나 各種 技術의 革新 變化와 더불어 國際 經濟 關係까지도 그 發展의 歷史뿌리를 追跡할 수 있다는데 본 考察의 뜻이 있다고 본다.

Ⅱ. 市場의 歷史

1. 三國時代 以前⁽¹⁾

우리 나라에서 시장이 처음 열린 것은 新羅 炙知王 12년(490년)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는 廣州에 설치된 도시적인 市廛인 京市를 두고 하는 말이다. 智證王 10년(509년)에는 東市를 설치하였고 孝昭王 4년(695년)에는 西市와 南市를 설치하여 각기 시전이라는 관리를 두어 시장을 감독하게 하였다.

日帝時代의 학자인 文定昌에 의하면 三國時代에는 장이 열리는 위치에 따라 네 종류의 市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街路市: 촌락과 촌락 사이의 인구 밀집 지역에 형성된 일종의 村落市

境界市: 三國時代에는 78개 小邑間에 형성된 시

城邑市: 78개 읍 중 중심지에 형성된 시

祭典市: 촌락 또는 읍민의 共同祭禮 때 부근에 형성된 시

高麗時代에는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佛教가 융성해지면서 農民과 商工人들 가운데 많은

(1) 1.2.3의 高麗時代의 城市, 城邑市, 遷市, 驛路制度, 市廛, 鄉市에 대한 市場歷史의 社會史的 接近 補完은 정승모 외, 「시장의 사회화」 웅진출판, 1992.2. 우리나라 시장의 역사 [1] 시장의 역사 pp.50-61면을 참조, 李相玉(1994), 第2,3章 在來市場의 起源 및 時代別 發達課程參照.

수가 寺院과 貴族에 隸屬되었다. 특히 불교가 융성해져 寺院經濟가 發達함으로써 사원이 확보하고 있는 土地나 奴婢의 수가 증대하였고 이러한 재원을 토대로 僧侶들은 自體의 으로 각종 手工業品을 生產하고 이를 팔아 부를 축적하였던 것이다. 또 穀物栽培는 물론 소금의 생산과 판매, 술의 제조 등도 이들이 담당하였으며, 심지어는 高利貸金業도 하였다고 한다.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은 국가에서 설치한 開城의 官設市場으로 외국 사신의 왕래가 있을 때면 大市가 되었다. 이러한 시전들은 고려 중엽이후 더욱 번창하였다.

『高麗圖經』을 보면 松都, 즉 개성에는 光化門에서 府民館에 이르는 거리 양쪽에 公廊形式的 점포가 늘어서 있었는데 朝鮮時代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高麗時代에는 鄉市를 墓市라고 하였다. 허시는 결국 시장과 같은 의미이나 유통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던 당시로서는 각자가 자신의 생산물을 가지고 나와 필요한 물품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貨幣로는 布本이 주로 쓰였는데 개성에서는 京市署라는 곳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였고 御史臺에서 감독하였다.

高麗末 신 유학사들의 상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高麗末期에는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商業의 비중이 커지고 商人的 數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高麗時代에 지방에서는 시장이 城·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城을 벗어나면 거주환경이 세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2. 朝鮮時代 鄉市

成宗元年(1399)에 서울에 市廳이 처음으로 설치되었는데 좌우로 800여 칸의 行廊이 懿政閣에서부터 吕德宮洞口에까지 늘어섰다.

市廳은 관청의 허가를 받아 장사를 하는 대신 官에 必需品을 供給하는 商店이다. 그런데 廳마다 규모가 달라서 이익이 많이 남는 곳을 끌라 國役을 부담케 하였는 바 이를 有分各廳이라 하였고, 특히 국역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규모가 큰 여섯개의 시전을 六矣廳이라 하였다. 朝鮮時代의 鄉市로는 처음에는 6~7일 간격으로 서는 定期市가 많았으나, 이후 점차 5일 간격으로 줄어 1일 行程, 즉 하루 왕복거리인 30~40리마다의 교통 요충지에 場이 들어서게 되었다.

기록상으로는 成宗 1년(1470년)에 심한 가뭄이 들어 전라도의 농민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듬해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서로 들고 나와 場을 열었는데 이것을 場門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이 처음이다. 그러다가 宣祖 때에 이르러 미약하게나마 5일 간격으로 각

지역이 연결되는 市場圈이 形成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場市의 개설은 더욱 진전되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이르게 되면 국토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것은 그 동안의 주거지 확산과 手工業 部門에서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商品貨幣經濟의 發達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다.

18세기에는 ‘禁亂塵權’이라는 法規가 생겼으나 18세기 말에는 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그 결과 正祖 15년(1791년)에는 亂塵人们도 영업세를 내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정조는 蔡濟恭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전의 난전에 대한 특권을 없앴다. 이것을 辛亥年에 이루어진 通共發賣라고 하여 辛亥通共이라고 한다.

일반 상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쌀장사였다. 이때는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고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곡물의 가격 차이가 심한 경우가 많아 쌀장사를 크게 벌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지방의 장시에는 17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사사로운 去來行爲가 인정되어 場市를 출입하는 상인들로부터 일종의 場稅를 징수하였다. 朝鮮後期의 場市는 郡縣에서 관리하였으며, 地方官은 場稅를 거두어 지방재정에 충당하였다. 場稅率은 지방마다 달랐는데 18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貨幣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18세기에 일어난 정기시장과 이를 통한 상품유통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여러 고을들이 커다란 市場圈을 형성하면서 場市들간에 그물같은 연결망이 형성되었다는 것과 國內外로 交易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 등이 있다.

3. 開港前後의 世界市場

1914년에 일제히 시장규칙을 제정하여 종래의 시장을 在來市場, 식료품 정기시장, 수산물 청과경매시장으로 나누었으며 모든 시장은 시·읍·면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市에는 公設市場을 설치하도록 하여 시에서 선정한 일본인에게 운영권을 주었다. 예를 들면 釜山의 부평시장은 1910년에 설립되었는데 1915년 이래 釜山府(日帝時代 釜山의 行政名)가 직영하였다.

이 시장규칙에 따라 龍山 公設市場이 1920년에 설립되었고 마포 公設市場이 1926년에 설립되었다. 원래 마포시장은 마포 나루터를 중심으로 17세기부터 형성되었으며 米穀, 魚物, 소금 등을 委託販賣하는 客主들이 자리잡고 있었으나 일제가 이때에 와서 도화동으로 자리를 옮기고 공설화한 것이다. 안국동의 公設 柴炭(땔감, 연료)市場은 일제가 기존

의 柴炭市場을 확장시킨 것으로 1919년에 설치되었다. 또한 일제는 陰曆으로 헤아리던 장날을 1937년에 강제로 모두 陽曆을 따르도록 했다.

아래의 표는 朝鮮 後期에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의 市場 數의 變化 趨勢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적인 시장 분포를 실은 책들을 참고하여 작성한 統計表이다. 그중 마지막의 김성훈의 책에서는 弊場되었거나 休場狀態에 있는 시장들은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4. 市場의 發達史

1) 物物交換과 貨幣

우리 나라에서는 朝鮮 中期인 孝宗 2년(1615년)에 이르기까지는 貨幣를 鑄造한 일이 혼자 않았고, 주로 麻布, 編布 등의 布 종류와 筍을 現物貨幣로서 사용하였다.

고려 成宗 15년(996년) 4월에 모양이 둥글고 가운데에 네모난 구멍이 뚫린 鐵錢이 鑄造되었다. 肅宗 7년(1102년) 때는 海東通寶와 銀瓶을 만들었다. 忠憲王 元年(1331년) 4월에는 처음으로 小銀瓶을 사용하였다. 조선시대로 넘어와 朝鮮 太宗 원년(1401년)에 河崙 등에 의해 일종의 지폐인 닥나무 껌질로 만든 楷貨가 발행되었으나 주로 祿俸 支拂에 쓰여서 지역적으로는 서울부근에 한정되어 유통되었다. 世祖 9년(1464년)에 楷貨 석(三)杖에 해당하는 버들잎 모양의 箭貨가 주조되었으나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으며, 王辰倭亂

〈표 1〉 市場 數의 變化 趨勢

	1777년	1808년	1830년	1908년	1926년	1976년
경기도	101	102	93	102	107	96
충청도	157	157	158	162	142	189
전라도	216	214	188	216	190	235
경상도	278	276	268	283	314	442
황해도	82	82	109	82	122	?
평안도	134	134	143	134	224	?
강원도	68	68	51	68	111	85
함경도	28	28	42	28	146	?
계	1,064	1,061	1,052	1,075	1,356	?
출처	『동국문헌 비고』	『만기요람』	『임원경제지』	『증보문헌 비고』	『朝鮮の市 場經濟』	김성훈 저서

* 김성훈 저서는 『한국 정기시장의 제도와 기능 연구』임.

자료 정승모, 前揭書, p. 60

중에는 명나라 군대에 의해 銀子, 즉 은화가 유입되었다.

肅宗 2년(1676년)에 동으로 만든 常平通寶를 주조, 발행한 이후로 주전 사업이 활발하여졌으며 高宗 3년(1866년)에는 當百錢을, 26년(1889년)에는 當五錢을 만들었다.

2) 수공업의 발달

우리 나라의 수공업사는 과거 우리의 민중이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物質的인 富를 創造하여 온 역사의 주요한 부분이다. 三國時代에는 네가지 형태의 手工業이 있었다.

첫째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官廳手工業이다.

둘째는 독자적인 수공업자들 또는 농민들이 副業으로 經營하는 手工業이다.

세째는 富裕한支配階級들이 운영하는 수공업이다.

넷째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서 村落을 구성하여 製品을 生產하고 供給하던 '成' 수공업이다.

三國時代에는 베나 명주를 짜는 織造 手工業이 발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직조품 가운데 일부는 상품으로 시장에 나서게 되어 이미 6~7세기에 麻織物들이 交易되었다.

高麗時代에는 직조 수공업도 더 한층 발전하였고, 그 밖에 금속 加工技術이 발달하면서 金屬活字가 발명되었다. 高麗青瓷로 대표되는 陶磁器 技術, 船舶製造 技術, 火藥武器 製作 技術 등의 발전도 이와 같은 수공업 인력의 專門化와 生產力 發展에 따른 결과다.

朝鮮時代로 넘어와서는 수공업의 특징을 이루던 '소'는 사라지고 민간 수공업과 관청 수공업만이 남게된다. 朝鮮 初에 만들어진 『經國大典』에는 수공업자의 나이가 60이 되면 役을 免除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중앙관청 수공업에 대한 규정의 하나인 番次制근무를 면제한다는 뜻이다.

생산의 내용에서 관청 수공업은 상당부분이 전문화되었으며, 이것은 지방 관청 수공업에서보다는 중앙 관청 수공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민간 수공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모시, 삼베, 무명, 명주 등을 짜는 織造 手工業이었으며 이것이 발전해 감에 따라 주요 特產地로 形成되었다.

민간 수공업의 발전에 비하면 관청 수공업은 오히려 점점 衰退해 갔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조선시대의 社會相과 그 變化를 반영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

朝鮮 後期로 오면 농업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공업에서의 변화와 발전에 힘입어 전국적인 체계를 갖춘 정기시장이 나타나는 등 商品流通과 貨幣流通이 동시에 발전하게 되었고, 이것을 원동력으로 하여 朝鮮 社會의 既存 秩序는 점점 解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3) 交易의 發達

한 사회 내의 物資 交換은 市場과 같은 일정한 場所를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사회끼리의 物資 交換은 상대방을 訪問함으로써 이루어진다.

高麗 時代에는 이러한 대외무역을 客館貿易이라 하였다. 국제무역은 그것이 진행되는 경위와 장소에 따라 使行貿易과 國境貿易으로 구분되며 그것은 다시 公貿易과 私貿易으로 나누어진다. 18세기에 와서는 公貿易보다 개별적인 상인들에 의해 진행되는 私貿易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朝鮮時代에 이루어진 국경무역을 보면, 1953년에 국내의 기근을 타개하기 위하여 의주 부근에 있는 압록강안의 섬인 중강(中江)에 시를 열고 교역을 허락하면서 공식화된 中江開市, 중강개시에서의 공매매 뒤로 사상들의 교역이 있은 중강後市, 그리고 櫻門, 즉 국경문을 출입할 때 櫻頭라고 하여 중국 북경을 방문하는 燕行使일행의 물자를 도맡아 대던 義州商人과 開城商人이 이들을 먼저 나가게 한 후 그 뒤에서 사사로이 매매하고 돌아왔던 책문후시가 있었다. 이외에도 北關開市와 倭關開市가 있었다. 국제무역이 활발히 진행되어감에 따라 일부 상인들은 中國과 日本 두 나라를 중개하는 무역도 하였다. 중개무역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물품은 백사(명주실), 은, 함석 등이 있다.

상인들은 개성상인을 주축으로 東萊商人과 의주상인들이 주로 활약하였다. 상인들의 이러한 중개무역은 자본주의가 짜트기 전에 진행된 本源的 資本蓄積의 한 과정이었던 것이다.⁽²⁾

5. 시장제도의 변천

1) 市場法의 制定 公布(1961.8.31)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시장에 관한 制度의 장치로서 법률을 만든 것은 서기 1951년 6월 22일 중앙도매 시장법을 법률 제207호로서 제정 공포한 것이 최초의 일이다.

그러다가 국민들의 生活必需品市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서기 1961년 5.16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군사정부가 집권한 직후의 일이다. 즉 군사정부에서는 서기 1961년 8월 31일 시장법을 법률 제704호로 제정 공포하였으며, 9월 11일에는 市場法施行令을 閣令 제179호로 制定 公布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만 해 놓고 市場近代化에는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근대화를 위한 노력과 작업을 지연시키는 逆效果만을 가져왔다.

2) 市場法의 改定-新市場法(1981.12.31)

생필품 시장에 대한 母法인 1961년에 제정된 시장법은 그 自體의 矛盾과 問題點 때문

(2) 정승모, 전계서2, 부분별 시장의 발달사, pp.62-73 참조.

에 이 법이 제정된 이래 그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 논의되어 오다가 법이 제정된 지 20년 만인 서기 1981년 12월 31일 드디어 개정을 보게 되었다. 개정된 시장법을 世稱 新市場法이라고도 불렀다. 舊市場法과 新市場法의 主要內容을 보면

- ① 시장의 개념 定義가 크게 다르다.
- ② 시장의 개설자를 종전의 不動產 賃貸業者로부터 명실공히 流通業經營者로 그 地位를 格上시켰다.

③ 販賣士 制度를 신설하였다 등이다.

3) 都·小賣業振興法의 制定 公布(1986.12.31)

都·小賣業振興法의 趣旨와 主要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零細하고도 非能率的인 在來市場으로부터 尖端技法을 도입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적 유통기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流通業을 均衡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정의하였다.

둘째, 시장의 건전한 운영관리와 입주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상인 조합으로 하여 금 市場管理者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消費者, 利用者의 불편을 줄이고 公益을 保護하기 위한 條項을 규정하였다.

〈표 2〉 市場分類의 變遷

일제시장규칙 (1914)	시장법 (1961)	개정된 시장법 (1981)	도·소매업진흥법 (1986)
1. 재래시장 (정기시장)	1. 상설시장	1. 상설시장 ① 도매시장 ② 일반소매시장 ③ 백화점 ④ 쇼핑센타 ⑤ 대형점	1. 시장(상설시장) 2. 정기시장 3. 대규모 점포 ① 백화점 ② 쇼핑센타 ③ 대형점
2. 공설시장	2. 정기시장		
3. 어채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3. 대형점 (백화점등)	2. 정기시장 3. 연쇄화사업	4. 도매센타 5. 연쇄화사업 6. 상점가
4. 상품, 유가 증권 거래소			

자료: 趙炳贊, 前揭書, p.359

(3) 趙炳贊, 『韓國市場經濟史』東大出版部, 1992, pp.351-359면 참조.

이재하 외. 전개서, 제4장 최근 정기시장의 특성과 변화양상에 대한 사례를 보완, pp.158-251면.

이로써 도·소매업진흥법의 목표가 종래의〔市場近代化〕보다 차원이 높은〔流通近代化〕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市場分類의 變遷을 알아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III. 市場의 種類

1. 서울의 市廳

지금도 그러하지만 과거에도 서울은 모든 것의 中心地였다. 각 廛의 주인들은 廐市井이라고 불렸다. 이들에게는 가게에 대한 世襲權이 인정되었다. 王亂 後에 서울에서는 '東部菜 七牌魚'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것은 낙산 및 연건동 일대에는 채소가 많고 봉래동 부근의 七牌에는 생선이 많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임란 이후에는 시전상인 이외의 상인들이 서울 장안에 本格的으로 출연했다는 사실이다. 六矣廳을 중심으로 한 市廳體制는 일제시대에 들어와 무너지고 그 대신 個人商街가 들어섰는데 백상회, 구정상회, 김운면 상회, 손종수 상회, 박승직 포목점 등이 유명하였다. 지금의 남대문 市場은 남문안장, 또는 신창안장이라고 불렸는데 그 부근에는 米倉이 있었다. 동대문시장은 배오개장이라 불렸다. 앞의 '東部菜 七牌魚'란 말에 나타나듯이 동대문시장에는 과일과 양초, 성냥, 유과 등의 잡화가 많았고, 남대문 市場에는 乾魚 등 수산물이 많았다. 해방후에 남대문시장 뒤편에 미군물자와 구호물자를 파는 '自由市場'이 형성되었는데 지금의 생선회센터 자리다.

1) 六矣廳

六注比廳, 六部廳, 六分廳, 六長廳, 六調備廳, 六主夫廳 등은 다 六矣廳을 지칭하는 말이다.

純祖 元年(1801년)에 廛의 수가 여덟 개로 늘어났으므로 八注比廳이라는 말도 생겼다. 六矣廳이 자리잡고 있던 거리를 鐘樓, 또는 雲從街라고 불렸다. 世宗 22년(1440년)이후로는 雲從街는 주로 종루라고 불렸으나 영조 20년(1760년)에 옛 지명을 다시 찾아 雲從街로 고쳤다.

남문안 큰 모전의 각싸 실과 다 잇구나
체실뇌 황실뇌 전시 홍시 죠홍시며
밤되됴잣 호두며 포도경도 외얏시며

서류 유잎복성와며 룽안여지 디되출다

상미전 좌우가가 십년지량 쓰아셔라
 하미 중미 극상이며 찹쓸 족쓸 기장쓸과
 록두 청퇴 적팟과 마퇴증퇴 기름륄다
 되를 드려 즈랑 흐니 만무과쇠 죠흘시고

이상은 19세기 말경에 불려졌던 漢陽歌의 일부로서 六矣廬의 각 市井, 즉 廬 주인들의 모습과 大長衣에 갓을 쓰고 소창옷에 한삼을 단 한복을 입고 고객을 안내하는 여리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六矣廬은 都中이라는 조합을 가지고 있었다. 직원은 都領位·大行首 등의 上公員과, 實任·車任·書記·書寫 등의 下公員으로 구성되었다. 大行首는 하나의 廬을 대표하는 자로서 조합의 책임자다.

朝廷에서는 六矣廬 등의 상설점포 주인들에게 가계世襲權과 去來獨占權을 주어 육성시키는 대가로 이들에게 막대한 國役을 부담시켰다. 관청의 冠禮, 婚禮, 葬禮 등에 부조를 하게 하고 宮이나 관청의 보수비, 바느질삯 등을 내게 하거나 그 밖에 긴급히 소요되는 물품이나 외국사신 접대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다. 특히 이것을 부담하는 廬을 有分各廬이라 하였다. 육의전의 변천모습은 〈표 3〉과 같다.

〈표 3〉 六矣廬의 變遷

	선조년간	정조 18년(1794)	순조 원년(1801)
육 의 전	선전	선전	선전
	면포전	면포전	면포전
	면주전	면주전	면주전
	지전	지전	지전
	저포전+내물어전	저포전	저포전+포전
	청포전	포전	내·외어물전
	포전 외어물전	청포전, 내어물전 외어물전	청포전

자료: 정승모, 前揭書, p.141, (1994), 〈表 3〉在來市場의 構造比較 pp.36-38 및 脚註 pp.56-69 參照.

2) 百各塵

서울에 있던 각종 市塵을 통틀어 百各塵이라고 부른다. 百塵은 크게 有分各塵(유분각전)과 無分各塵(무분각전)으로 나뉜다.

• 有分各塵(유분각전)

線塵, 10: 비단을 팔던 市塵으로 서울에 있던 모든 嘉의 유품이었다.

綿布塵, 9: 무명을 팔던 市塵으로 한때 은자도 팔았으므로 銀木塵이라고도 하였다.

綿紬塵, 8: 명주를 팔던 市塵.

內外魚物塵, 9(내5, 외4): 내외어물전은 종로 1가 청진동 입구 좌 우에 있었고 외어물 전은 칠판, 즉 서소문 밖에 있었는데, 순조 원년(1801년)에 두 嘉을 합하여 육주비전의 하나가 되었다.

青布塵, 3: 우리 나라뿐 아니라 중국 및 외국의 화포(花布), 홍포 등과 전(氈), 즉 텔로 만든 옷과 담요, 텔모자 등을 전문으로 팔았으며, 내어물전과 한 주비가 되었다가 정조18년(1794)에 주비전의 자격을 잃었다.

이외에도 지전, 저포전, 포전, 연초전, 상전, 생선전, 미전, 잡곡전, 경염전, 유기전, 은 전, 의전, 면자전, 이전, 화피전, 인석전, 진사전, 청밀전, 내장목전, 철물전, 인죽전, 시저 전, 우전, 마전, 체계전 등이 있다. (각전옆의 숫자는 품수, 즉 국역의 규모를 나타낸 것임)

• 無分各塵(무분각전)

氈笠塵: 전립은 텔모자, 텔갓 등을 말한다. 텔로 만들었으므로 毛笠이라고도 하고 하금 군인들이 썼으므로 氈笠이라고도 한다. 우리말로는 병거지라고 한다.

履底塵: 昌塵이라고도 했으며 쇠가죽으로 만든 신창을 팔던 곳이다. 짚신, 가죽에 기름을 먹인 징신 唐鞋 등도 팔았다.

繩鞋塵: 짚이나 삼으로 삼은 미투리를 팔던 것이다. 짚으로 짚신, 삼으로 만든 것은 삼 신이라고 한다.

柴木塵: 땔감 팔던 곳으로 조선 말기에 없어졌다.

바자전: 바자를 팔던 곳. 바자의 고어가 ‘바조’ 이므로 바조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대, 갈대, 수수깡 등으로 발처럼 엮은 것으로 주로 울타리를 만드는 데에 사용했다.

이외에도 고초전, 목기전, 합회전, 족두리전, 망건전, 저전, 병아리전, 생치전, 치계 전, 자반전, 남문외해전, 내외분전, 백당전, 염수전, 복마제구전, 갑철전, 침자전, 전촉 전, 도자전, 외장목전, 오리목전, 채소전, 잡전, 세물전 등이 있다.

2. 有名市場

1) 松坡場

松坡場은 서울 外廓의 가장 큰 亂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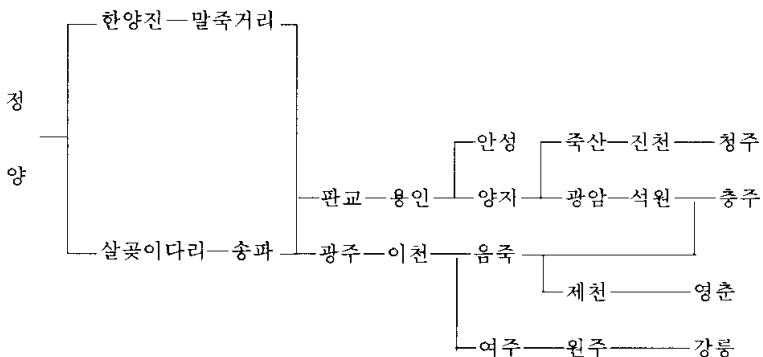
松坡山臺놀이는 朝鮮 後期에 크게 번성한 송파장을 배경으로 형성·발달된 것이다. 7월 백중날에는 일 주일에서 열흘씩 놀이판을 벌여 시장을 더욱 번성시켰다.

전설에 따르면 太祖 李成桂가 도읍을 松都에서 漢城으로 옮기고 사방에 장승을 세웠으며 동으로 퇴계원과 송파, 남으로 노량진, 북으로 구파발 등에서 탈놀음패를 불러다가 사방에서 놀음판을 벌여 잡귀를 쫓은 후 사대문을 세웠다고 한다. 松坡場은 원래 5日場이므로 본 장날은 하루지만 그전날에도 물건을 실어 나르고 내가는 화물과 상인들로 붐볐으므로 거의 常設化되다시피 하였다.

1890년을 전후하여 경인선 및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는 등 운송수단이 발달하고 교통로가 변화하면서 松坡場의 경기는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일제시대에 들어와서는 서울 장안 곳곳에 상점이 들어서면서 분산되어 갔다.

開城에도 市塵이 발달하여 서울의 六矣塵과 같은 四大塵이 있었다. 전주에도 17세기 말에 이미 市塵이 발달하였다. 지방에서는 역시 5일간격으로 열리는 定期 市場이 주류를 이루었다. 다음은 金素雲이 편찬한 『朝鮮口傳民謠集』에 실린 각 지방의 장타령들이다.

춘천이라 샘밭은 신발이 젖어 못 보고



<그림 1> 松坡場을 거쳐 漢陽에 이르는 流通經路

자료: 정승모, 前揭書, p.153.

홍천이라 구만리장 길이 멀어 못 보고
 이귀 저귀 양귀장 당귀 많어 못 보고
 한자 두자 삼척장 메가 많어 못 보고
 명주 바꿔 원주장 에누리 많어 못 보고
 값 많은 강능장 값이 싸서 못 보고
 이통저통 통천장 알 것 많어 못 보고

이것은 이천지방에서 採集된 장타령의 일부이다. 주로 이천 동쪽에 있는 경기도, 강원도의 장들이 소개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아산지방의 장타령은 농가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모아 시장에 내다 파는 行商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목발 없는 지게 지고 골목골목 들어가니
 뿌리없는 감나무 감이나 잔뜩 열어서
 밀살 없는 광우리에 감이나 잔뜩 담아서
 백으내장으로 갔더니 배덕 걸려 못 팔고
 뜰미시장으로 갔더니 시간이 틀려서 못 팔고
 신평장으로 갔더니 하두 심심해 못 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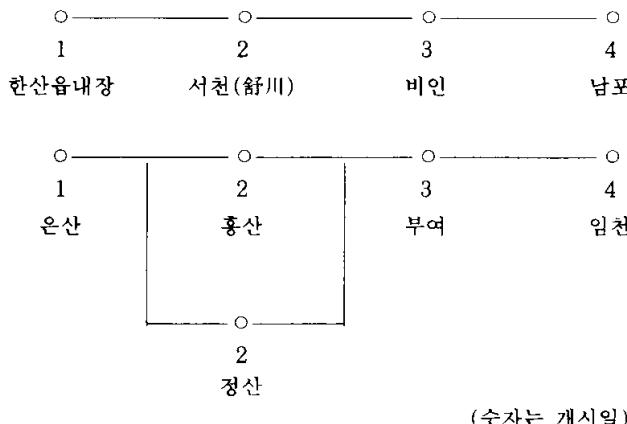
2) 朝鮮의 3大 市場

조선의 3대 市場이라고 하면 平壤市場, 大邱市場, 江景市場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평양시장과 강경시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평양시장에 대해 알아보면 평양은 일찍부터 정치·경제적으로 西北地方의 中心地였다.

평양의 상인들은 國內商圈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對清貿易에 종사하면서 中國 燕京까지 진출하여 활동하였다. 그 결과 18세기경 평양에는 각종 상점들이 즐비하였고 여러 지방에서 몰려든 상품들이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 특히 평양에는 坊里別로 場이 섰는데 한坊里의 場市만도 地方 場市를 능가할 정도였다. 상가에는 坐賈(좌고)와 行商들이 일용에



(숫자는 개시일)

<그림 2> 莖產8邑의 開始日

자료: 정승모, 前揭書, p.159

필요한 물건들을 산적해 놓았으며 鋪典 등 御用商人들의 市廳도 44개나 되었다.

강경시장은 육로로는 공주와 전주까지, 그리고 뱃길로는 금강을 따라 군산, 논산, 이리까지 연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름진 금강 평야를 끼고 있어 수산물은 물론 농산물과 축산물의 交易場으로 유명했다. 고기잡이 철에는 특히 수산물로 성황을 이루었다. 17세기까지만 하여도 작은 浦口에 지나지 않던 강경은 18세기에 들어와 금강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도시로 성장하여 18세기 말엽에는 1,400~1,500호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은파장, 진두장, 원산장, 충청도 저산8읍의 市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모시(苧)가 난다는 뜻의 莖產8邑의 開始日은 <그림 2>과 같다.

3. 特殊市場

일반시장에서 주로 매매되었던 물품은 농사물, 축산물, 철물, 각종 천, 의복, 갓, 가죽제품, 문방구류, 각종 그릇류 등 生活 必需品이었다. 그러나 特產地나 貨物 集散地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 또는 거래 품목이 한정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專門市場이 형성된다. 일제 때의 곡물시장과 같이 市場의 專門化가 政策에 의해 人為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特殊市場에 대해 살펴보자.

1) 牛市場

보통 ‘쇠장’이라고 불린다. 1918년 당시 단위시장으로서 큰 시장으로 유명하였던 곳은 거래량이 25,000두 이상이었던 함북 명천군 명천장과 길주장이었고, 경기도 수원군 수원읍, 양주군 한금면 삼패리, 용인군 외서면 백광리 등이 20,000두 이상 거래되었던 곳이다.

공급자인 소장수들은 세부류로 나누어지는데 收集商과 仲介商, 그리고 移動商人이다.

수원의 牛市場은 전국에 이름이 난 곳이었다. 장날이면 각지에서 소장수와 농민들이 몰려들어 언제나 盛市를 이루었다. 수원의 牛市場은 일반시장과 함께 섰는데 城內市場은 10일 간격으로 9, 19, 29일에, 城外市場도 역시 4, 14, 24일에 열려 전체적으로는 5日場이서는 셈이 된다. 강원도 일대는 비교적 牛市場이 발달한 곳인데, 그 분포를 보면 교통이 편리한 低地帶일수록 수가 적고 오히려 교통이 불편한 山岳地帶에 많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홍천, 회성, 강릉, 북평 등의 牛市場이 유명하다.

쇠장에서는 예사말을 안쓰고 변말(은어)를 쓰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15원을 합 뚜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0원짜리 한 장 반이라는 뜻으로, 장 반이 쟁반이 되고 그것이 뚜껑으로까지 된 것이다.

2) 穀物市場과 魚市場

먼저 穀物市場에 대해 살펴보면, 일제는 1920년 4월에 市場에 관한 규칙을 개정 하면서 서울, 군산, 목포, 대구, 부산, 진남포, 신의주, 원산, 강경 등 아홉군데에 穀物市場을 설치하였다.

組合場은 일본인이었으며 조합원 29명에 중개인 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1921년 12월 20일 南大門路에 穀物市場이 세워지고 이듬해 3월 1일 開場되었다. 市場의 명칭은 京城物商組合 穀物市場이었다. 매일 열린 이 市場의 개장시간은 前場이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이고 後場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였다.

魚市場에서 주요했던 곳은 서울에서는 龍山 등 세군데에 있었고, 인천, 군산, 대구, 부산, 평양, 진남포, 원산, 청진, 마포 등에 있었다.

한 魚市場이 魚類를 모으고 분산시키는 地域範圍는 매우 넓다. 예를 들면 魚市場은 전주, 이리, 강경, 대전, 조치원, 용산 등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일제 때 부산수산주식회사가 된 부산 魚市場의 경우 대구, 대전, 마산, 평양, 신의주 등 전국 각지와 만주 일대에까지 魚物을 供給하였다. 원산 魚市場도 역시 일제 때 원산수산주식회사가 되어 평양, 인천, 그리고 龍山에까지 魚物을流通시켰다.

이외에도 特殊市場으로서는 藥令市, 柴炭市場, 菜蔬市場, 人力市場, 株式市場, 朝夕市, 번개市場, 夜市場, 포구市場 등이 있었다.⁽⁴⁾

(4) 정승모, 前揭書, 5. 유명시장, 특수시장의 내용참조 pp.136-171, 趙炳贊, 前揭書, 제3장, pp.14-193 참조, 權內卓, 『藥令市研究』, 한국연구원, 1986, 기존의 약령시에 대한 관념론, 부정에 대한 각종 자료 보완 필요함.

IV. 市場의 機能(朝鮮時代)

1. 經濟的 機能

朝鮮時代에는 常設店鋪가 存在하지 않았고 또한 店鋪마저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즉 在來市場이 唯一한 商業機關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일년 중에는 出市人波와 거래량이 가장 많은 이른바 「대목장」이 내차례 있다. 「단오대목장」, 「백중대목장」, 「추석대목장」, 「설대목장」이다.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在來市場은 지방민의 生產物資購入을 위한 유일한 事業機關이었던 것이다.

2. 社會, 文化的 機能

주민들이 市場에 出市하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目的別 出市人の 構成을 보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約束이나 氣分 轉換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며, 돈을 빌리거나 갚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와, 社交 또는 娛樂을 즐기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도 있었다.

따라서 지방의 在來市場은 經濟的 機能 이외에도 중요한 社會·文化的 機能을 수행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在來市場의 社會·文化的 機能을 요약하면

첫째, 문물의 傳播機關으로서의 기능이다.

둘째, 通信媒體로서의 기능이다.

셋째, 社交場所로서의 기능이다.

넷째, 娛樂機關으로서의 기능 등이다.

3. 在來市場의 逆機能

在來市場의 逆機能으로는 시장 상인들의 不公正去來에 의한 地方民 즉 農民들의 피해와 지방시장의 經濟外的 機能에서 파생되는 病幣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度量衡의 속임수, 농민의 無知함에 便乘한 계산의 속임수 등에 있었다고 한다. 후자는 市場에서의 社交, 娛樂, 射倖行爲로부터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酒色, 射倖 및 賭博 등에 빠져 농민들은 생산물을 판매한 돈을 전부 市場에서 소비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가산까지 蕩盡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⁵⁾

(5) 趙炳贊, 前揭書, IX. 정기시장의 기능 참조, pp.125-129, 李相玉(1994), 第2,3節, 第3章 第4節의 役割機能과 流通經濟的 機能 參照.

V. 市場의 社會經濟的 意味

1. 俗談에 反映된 市場의 社會經濟史的 意味

“都市는 線이다.”라는 말이 있다. 電氣와 上·下水道는 도시 생활에 필수적인 선이며 도시가스선과 유선, 무선의 전화선도 이미 없어서는 안 될 線이 되어가고 있다.

도시인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현실들을 이와 같이 늘어 놓는 이유는 현대에 비해 지역 간의 일상적인 인구이동이 거의 없었던 傳統 農耕社會의 特性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이다.

그럼 지금부터 속담에 반영된 市場의 社會經濟史的 意味를 몇 가지의 속담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거름 지고 나선다.” 이것은 主觀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무릎에 망건 써운다.” 이것은 남이 무엇을 하니까 뎅달아 급히 서두는 경우를 말한다.

“양반 못된 것이 장에 가 호령한다.” 이것은 못된 사람이 만만한 데 가서 잘난 체하는 것을 謔刺한 속담이다. “중놈 장에 가서 성내기”는 아무 반응 없는데 가서 氣를 올려 큰 소리치는 자를 꼬집어서 하는 말이다.

또한 “舜임금 독장사”라는 말은 어진 舜임금도 장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남을 속이게 된다는 뜻이다.

농민의 사회적 성격을 말할 때 간혹 二重性이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곧 經驗의 二重性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많은 정보가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 많은 사람과 많은 정보가 모이는 市場 또한 갖가지 소문을 내기도 하고 재빨리 傳播시키기도 한다. 市場을 출입하는 농민은 市場이 갖는 이러한 機能으로 인해 평소에는 접할 수 없었던 外部世界에 대한 많은 情報와 所聞을 듣게 된다.

2. 身分制 社會에서의 市場

『孟子』의 公孫丑(공손추)章을 보면 壟斷이라는 말이 나온다. 物物交換의 단계에 있던 옛 날의 한 市場에 어느 날 跖丈夫가 나타나서 언덕진 곳, 즉 농단을 찾아 올라가 좌우를 살핀 후 이익을 그물질하듯이 독점해 간다는 뜻이 되었다고 한다. 천장부란 곧 상인을 말하는 것으로 儒教의 論理에서 보면 농단을 이용한 그의 행동은 결코 정당한 것이 못된다.

中國이나 韓國과 같이 발달된 농경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商業, 즉 장사를 통해 큰 돈을 버는 商人們을 경계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유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득은 생산활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유교적인, 나아가 농경사회적 관점이 아직도 그 뿌리를 같이하고 있기도 하다.

3. 民亂의 背後地로서의 市場

市場이 朝鮮時代에 일어났던 각종 民亂의 背後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장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므로 자연히 情報交換이나 國家 施策의 弘報場所로 이용된다는 市場의 特性 때문이었다.

평안도의 대표적 地方市場인 박천 진두장의 토착상인으로서 藥材 貿易權을 독점한 藥契物主였던 김혜철은 당시 손꼽히던 大商人이었다. 그는 서북지방의 藥契組織을 통해 각지방의 약재들을 買占하는 한편 구입한 약재를 각 지방 약재업자 및 약국에 판매하였다. 그는 약재의 구매와 판매 및 대금회수를 위해 각 지역에 差人을 두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藥契網과 差人们, 그리고 그의 풍부한 자금이 1811~1812년의 平安도 農民戰爭, 즉 洪景來亂에 동원되었던 점은 民亂을 연구하는 데 반드시 주목되어야 할 사항이다.

18세기 중엽부터는 농촌을 離脫한 사람들이 地域別 또는 階層別로 組織化하여 集團을 이루는 경향이 나타났다.

농촌을 떠난 이들이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살았던 지역의 親戚이나 親知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던 時間과 場所가 바로 장날의 장터였다고 본다면 流民과 農民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대부분의 민란이 市場을 배후지, 또는 집결지로 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 實例로서 廢四郡團, 後西江團, 流團, 彩團 등을 들 수 있다.

4. 사회변동의 현장으로서의 市場

19세기 후반 이후 流民化가 가속화되면서 곳곳에서 火賊集團이 일어나 1900년경에는 活貧黨이라는 전국적인 조직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개항기 이후 日本 商人們에 의한 침탈이 심해지면서 조선상인들의 일제에 대한 抵抗도 시작되었다. 1905년의 乙巳條約은 이들의 저항을 민족적 저항으로 승화시켰다. 을사조약에 항의하여 閔泳煥이 자결하자 홍분한 종로의 상인들은 일제히 뜻을 하며 撤市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그 후 3·1운동 때도 나타났다. 특히는 철시 일제에 대한抵抗의 表示로서 자주 행해졌다.

시대가 바뀌고 사는 방식이 달라진 요즈음은 과거의 市場 모습을 찾기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비록 몰락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시골장은 儉約이 몸에 뱐 農民들과 零細한 商人們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生活의一部로 자리 잡고 있다.

V. 結論

韓國의 在來市場이 歷史的으로 社會의 變化와 함께 어떻게 發達·變貌돼 왔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市場은 누구에게나 公開된 場所이면서도 막상 역사의 줄기에서는 가려지고 묻힌 분야 가운데 하나다. 이것은 역사를 움직여 온 수많은 民衆의 살아 움직이는 生活事에 대한 우리의 無關心때문이었다.

市場은 物資가 交換되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물자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교환됨을 알았을 것이다.

市場은 民衆의 삶의 方式, 즉 民族의 集結所라고 할 수 있는 民衆의 힘을 모으는 곳이다.

市場은 社會變動의 場이다.

이 고찰을 통해서 전통적인 在來(定期)市場에 대한 관심을 갖기 바라며, 오늘의 市場의 뿌리가 되새겨지기를 바란다.

더해서 經濟發展으로 緣由해 인간의 생활을 보다 自由롭게 해주고 物質的 次元에서 더욱 安定된 生活을 營爲, 文化生活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발전을 志向함에는 傳統的인 歷史, 經濟, 社會, 文化面에서 그 價值觀을 抛棄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에 대한 뿌리와 根本을 沮害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物質的 個人的인 次元만의 蔓延을 가져오지 않도록 經濟歷史的인 면과 사회사적인 측면에서의 傳統的인 在來市場을 살펴 오늘의 當面한 各種 問題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비교·평가해 보자는데서 큰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參考文獻

1. 古書 및 史料

『京都雜志』, 『高麗史』, 『高麗圖經』, 『東國文獻備考』, 『萬機要覽』, 『林園經濟志』,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擇里志』, 『漢京識略』

2. 著書 및 論文

- 姜萬吉,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高麗大學校出版部, 1973 「朝鮮時代 商工業史 研究」, 『韓國社會研究』, 제2집, 한길사, 1984, 『이조의 상인』(춘추문고 015), 한국일보사, 1975.
- 國史編纂委員會, 『朝鮮前期 商工業』(한국사론II)-榆元東, 「商工業의 概觀」; 延正悅, 「市場」; 朴元善, 「商人」; 權丙卓, 「手工業」
- 金大吉, 「18과 19세기의 市場에 대한 일고찰」(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1984.
- 金炳夏, 「襍負商에 관한 考察」, 『經濟學論集』, 제3권 제1호, 중앙대학교, 1963.
- 金成勳, 「韓國定期市場의 制度와 機能 研究」, 농촌경제연구소, 1977.
- 김영상, 「商工業의 中心地 雲從街」, 『신동아』, 1983, 7월호(통 권227).
- 金日坤, 「李朝時代의 향시급지방상업」, 『經濟』 제5집, 부산대 학교, 1962.
- 朴康壽, 「韓國定期市場研究」, 범학도서, 1977.
- 朴元善, 「韓國의 場市」, 『동방학지』 제 46가 47가 48 합본호, 1985.
- 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조선전사』 중세1, 科學百科事典出版社, 1980.
- 宋贊植, 「李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研究」, 한국문화연구소, 1978
- 申庚林, 「民謡紀行」(오늘의 사상신서 91), 한길사, 1985.
- (주)新世界, 『韓國의 市場商業史』, 1992.
- 劉教星, 「서울 六矣慶 研究」, 『역사학보』 제8집, 역사학회, 1955; 「李祖時代 서울의 商業概觀」, 『鄉土書』 제6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9.
- 劉元東, 「李祖後期 貨幣史研究」, 한국연구원, 1968.
- 元裕漢, 「朝鮮後期 貨幣史研究」(韓國研究叢書 제29호), 한국연구원, 1975; 『朝鮮後期 貨幣流通史』(정음문고 165), 정음사, 1978.
- 林炳茂, 『장날』, 청지사, 1983.
- 李景植, 「16세기 市場의 成立과 그 基盤」, 『韓國史研究』 제57호, 1987.
- 李光奎, 『襍負商』, 문화재관리국, 1968.
- 李德成, 「韓國의 定期市場에 대한 人類學的 研究」, 『人類學 論集』 제2집, 1976.
- 李相玉, 「在來市場의 生成發展에 따른 小賣流通近代化에 관한 研究」, 『經營史學』 第7輯, 1992, 經營史學會.
- _____, 「朝鮮時代定期市場에 관한 研究, -制度와 流通經濟史的側面에서-」 亞洲大學校 李

宗愛教授 停年退任 紀念論文集, 1994.

_____ 『韓國在來市場의 變遷과 流通代化관한 研究』 檀國大學校 經濟學科·博士學位論文, 1994.

_____ 『在來市場의 發展과 流通機關의 動向에 관한 研究』 “社會科學 研究” 創刊號, 1993. 大成大學 社會科學研究所.

李勳燮, 黃善民, 『褓負商研究』, 보경문화사, 1990.

李宰夏 외, 『韓國의 場市』, 민음사, 1992.

李憲祚, 『開港期 市場構造와 그 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홍성지방의 市場 발달사」, 『홍성군지』, 홍성군, 1990.

정승모, 『市場의 社會化』, 웅진출판, 1992.

趙炳贊, 『韓國市場 經濟史』, 동대출판부, 1992.

3. 외국문헌

宮原免一, 「十五・六世紀 朝鮮におりる地方市」, 『朝鮮學報』 第7輯, 1956: 「李朝初期の産業地圖について」, 『朝鮮 學報』 第48輯, 1968.

文定昌, 『朝鮮の市場』, 日本評論社, 東京, 1941.

山口精, 『朝鮮產業誌』, 1910.

石原潤, 「定期市研究における諸問題」, 人文地理 20-4, 「人文地理學會」, 東京, 1968.

善生永助, 『朝鮮人の商業』(朝鮮總督府 調査資料 第11輯), 1925: 『市街地の商圈』(朝鮮總督府調查資料), 1926: 『朝鮮の物產』(朝鮮總督府 調査資料), 1927: 『朝鮮の市場經濟』(朝鮮總督府 調査資料 第27輯), 1929: 『朝鮮における市場經濟生活』, 『朝鮮學報』第4輯, 1953: 『朝鮮在來の商業慣習』, 『朝鮮學報』 第9輯, 1956: [開城の商人 商業慣習], 『朝鮮學報』第46輯, 1968.

李能和, 『朝鮮の褓負商とその變遷』, 『朝鮮』, 1937.

朝鮮總督府, 『朝鮮の市場』, 1924: 「忠清南道の市場狀況」, 調査彙報, 1925.